목포·무안 접경지에 둥지 튼 전라남도 행정 중심지

「김양배의 사진으로 본 광주·전남 변화상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일원」

전라남도 도청이 109년의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2005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. 전라남도 목포시(부주동·옥암동·삼향동)와 무안군(삼향읍·남악리·일로읍 오룡리)일원에 들어선 남악신도시는 전라남도 도청이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로 이전되어 옥암지구를 편입하고 확대한 계획도시이다. 총 면적은 1454만6000㎡으로 일부 부지는 영산호 일부를 매립해 이뤄졌다. 2005년 전라남도 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의회, 전라남도교육청, 전남경찰청 등 77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전라남도 행정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.

2001년 전라남도 무안군 오룡산에서 바라본 남악신도시 전경과 2025년 모습.

❶전라남도청 ❷전라남도의회 ❸남악저수지 ❹전라남도교육청 ❺전남경찰청 ❻중앙동산 ❼남악 중앙공원 ❽전라남도 도립도서관 ❾영산강 하구둑 ❿부흥산

글·사진=김양배 기자